충남기계공고 동문회보(월간)

총동문회 지표
❖ 참여하는 동문회
❖ 협력하는 동문회
❖ 모교돕는 동문회

설송소식
2022년 1월 제263호 http://cnmhs.net

PENSION & RESORT MIRVILL
자연과 함께하는 유양형 힐링타운
미르빌 펜션&리조트
예약실 064-792-2918 모교동문 할인
대표 조 성 민(16회) 010-5402-31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846번지

창간 : 1999년 3월 31일 발행인 : 강신열 편집인 : 이우정 인쇄인 : 한흥교 사무처 : (042)252-5656 팩스 : (042)584-5658 E-mail:2525656@hanmail.net

“용맹과 정직함으로 난관 극복하여 일상회복 기대”

임인년 호랑이해 3만4천 여 동문가족 건강과 행운 기원합니다!

희망 찬 임인년 새해가 밝아왔다. 3만 4천 여 동문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은 60갑자 중 39번째 해로 임인(壬寅)이라는 한자 중 임(壬)은 검다는 뜻이며, 인(寅)은 호랑이로 즉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된다. 검은 호랑이인 흑호(黑虎)는 모험과 명예욕이 강하고 용맹스러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힘이 넘치고 정직한 동물이라고 한다.

재작년 초부터 코로나19전염병은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빼앗아가고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급증시켜 서민들의 삶을 2년여 동안 황폐화 시켰다. 특히 잠잠할만하면 오미크론 같은 각종 변이가 등장하여, 사람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계속 백신을 맞으면서 일상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고통의 삶을 감내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버텨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용맹스러운 검은 호랑이의 위력으로 코로나가 잡혀서 지구촌 사람들이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힘든 전염병 시대에도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촌 도인들은 인류에게 전염병 시대에 하늘의 “착하게 살라”는 메시지로 경고하고 있다. 새해 초에 만난 도인은 항상 사람들과 원수짓지 말며 참회기도를 올리고, 호흡을 길게 하는 수행을 하고, 집안에 촛불을 준비해두라고 말해주었다.

새해 평소에 교훈 삼는 삶의 법칙 6가지를 수시로 새겨본다. 삶의 법칙 6가지는 산울림의 법칙, 실과 바늘의 법칙, 수영의 법칙, 타이어의 법칙, 김치의 법칙, 고객의 법칙이다.

산울림의 법칙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실과 바늘의 법칙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영의 법칙은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도전정신으로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뛰어드는 용기를 지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타이어의 법칙은 힘든 난관이 올수록 자신의 옹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가 사막을 달리다가 모래구덩이에 빠질 경우, 빵빵한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만이 탈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삶의 법칙 중에 가장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김치의 법칙이다.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다섯 번이나 죽어야 된다고 한다. 배추가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배를 가를 때 두 번 죽고, 소금에 절일 때 세 번 죽고, 양념에 버무릴 때 네 번 죽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입안에서 씹힐 때 죽는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죽이고 죽여 맛있는 김치로 태어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성인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고객의 법칙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영위해야 하는 지를 가르쳐 주는 가르침이다. 인생이라는 가게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고객이다. 만약 고객을 무시하고 홀대하며 화까지 낸다면 그 인생은 망한 것이다. 힘들어도 항상 미소로 맞이해야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벗지 못 하는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참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한다. 버티고 버텨서 살아남으면 코로나가 사라진 이후의 지구촌은 평화시기로 접어들며, 종전과 달리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다.

충기 동문 여러분, 아무쪼록 버티고 버텨서 꿋꿋하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마스크를 벗고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맞대고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건재하시길 바랍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임인년 새해 대청호에 해가 뜬다…고니가 훨훨훨”

대청호가 1980년 생기면서 우리의 많은 동문들을 포함하여 지역민들이 조상 대대로 지나온 역사를 호수 안에 묻어놓고 이주하여 현재는 충청권의 식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청호에는 해마다 겨울이 되면 북극 시베리아 등에서 고니 등이 날아와 생활하고 거위가 산책객들과 어울려 노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사계절 사람들의 휴식처인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명상공원에서 아침에 해돋이와 동시에 힘차게 날아오르는 고니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관련 화보 4면- <글, 촬영: 이경세 (자동차과 10회. 사진작가)>
이경세 동문은 현재 사단법인 한국산악사진가협회 회원으로 오랫동안 작품 사진을 찍어왔고, 현재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편집자 주-

“코로나 극복, 남은 임기 최선의 노력 다할 터”

〈강신열 총동문회장 신년사〉 임인년 새해에도 관심과 애정 기대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 임인년 새해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합니다. 제18대 총동문회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1년 4월27일 뒤늦게 출범하였습니다. 벌써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 2022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문회 행사 등 활동도 제대로 못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우리 훌륭한 동문님들은 총동문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총동문회는 무탈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동문 여러분께 가슴깊이 진솔한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도 총동문회에 대한 동문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18대 총동문회는 올해에도 시대상황을 극복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코로 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설송회보 및 밴드를 통한 동문님들과의 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18대 총동문회는 남은 임기동안 동문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임인년 새해, 동문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제18대 총동문회장 **강 신 열** 올림

“재학생 꿈 맘껏 펼치도록 쾌적한 환경 조성”

〈이종업 모교 교장 신년사〉 지난해 괄목 성과, 동문들의 도움 큰 힘

안녕하세요! 동문 선후배님! 모교에 부임 해온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지난해 부임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첨단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 방향을 ‘학생 미래의 삶 중심의 출구 전략’을 세워 충남기계공업고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명문 특성화고교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일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제56회전국기능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학교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였으며, 과별로 스터디카페를 만들고, 전국 최초로 취업카페도 마련하였으며, 학과 개편 및 재구조화 15억(국고) 예산도 확보하고, 학생 교직원들의 아름다운 쉼 공간(나르샤실, 테라스 3곳, 본동 8곳)을 조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특성화고로 선정(47명 부사관 무시험 임관, 국고예산 2억 확보) 되고, 160억 규모의 재건축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설계하는 등 여러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이 전년 대비 매우 어려워 미달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데, 우리학교는 60여 명이 떨어질 정도로 신입생 모집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또한 2021년 청렴 우수학교로 선정되고, 공무원 및 공기업에 합격한 학생이 13명에 달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학교 교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결과입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동문 선후배님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걸음에 2천만 원을 보내준 테크노동문회, 120만원을 선뜻 보내온 동기, 고생하신다고 모교 선생님 모두에게 손연재 의자를 보내준 임동현 후배님, 힘내라

고 마스크 만장을 보내준 동기, 오랫동안 매년 1천5백만 원 이상을 기능부에 후원하는 전종현 선배님과 최동준 후배님, 올해로 7년째 연천만 원 이상의 장학금을 보내오는 이중선 후배님, 박봉의 모교 교사로 퇴직하며 마다하는 5백만 원을 기어이 장학금으로 주고 가는 후배 선생님, 바쁜 와중에도 학교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학교를 돕는 후배님, 그 밖에 수많은 동문님들 도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올해에도 3만4천 여 명 동문들의 성원에 힘을 내어 명문 특성화고교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며 자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고, 모교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동문 선후배님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동문님! 아무쪼록 임인년 새해,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 모교 운동장에서 마스크 없이 환하게 담소하기를 고대합니다. 가정의 평화와 행운을 기원합니다.

나날이 좋은 날 되세요.

2022년 1월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이 종 업** 올림

이명희 동문 정성에 발전기금 납부 “나비효과”

송의석(3회) 조성민(16회) 안영호(24회) 동문 각각 1백만원 등 잇따라

총동문회 운영이 어려워 동문회보 발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이명희 동문(방직과 6회)이 300만원이란 거액의 발전기금 희사(본보 2021년 11월 호 기사)를 보고 감동한 동문들이 발전기금을 보내와 1월 발전기금이 예년에 비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전국에서 월간 8쪽 신문을 발행하는 고교동문회는 우리 충남기계공고 동문회가 유일하다.

이번 1월호로 263호를 발행하는 기록을 세운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설송소식 동문회보는 선배들이 땀을 흘린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 제주와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는 조성민 동문(16회)이 100만원을 보내온데 이어 송의석 동문(3회)과 안영호 동문(24회)이 각각 100만원을 보내왔다. 이밖에 수십 명의 동문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을 보내오고 연회비 2만원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등 성의를 표하고 있다.

송의석 동문은 “동문회보는 창간호부터 여기까지 동문들의 정성이 담긴 소중한 역사 자료”라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안영호 동문은 “더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항상 충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모교와 동문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잃어버린 지난 30년 세월 다시 찾은 감격 지금도 생생”

〈강웅규 26회동문회장, 졸업30주년 소감〉 자랑스런 충기동문으로 계속 만날 것

우리는 지난해 12월 11일에 가슴 벅찬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날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코로나19의 확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울에서, 경기에서, 대전에서, 부산에서, 순천, 목포에서 은사님과 선·후배, 친구들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동기 친구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친구야 반갑다. 잘 살았구나”라며 인사했고, 은사님께는 “선생님 여전하시네요”라고 인사를 올리며 잃어버린 지난 30년 세월을 우리는 다시 찾았습니다.

학창시절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상에 어긋남 없이 살아가게끔 초석을 다듬어준 스승님들께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한 죄스러움에 고개가 숙여졌고, 이미 중년의 모습이 되어버린 친구들 중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슴 찡한 만남의 장을 나름대로 성황리에 마치고 나니 지난 준비과정의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감동과 보람으로 승화되는 듯 합니다.

작년 연말 이번 행사의 준비를 시작할 때만 해도 만남의 기쁨에 대한 기대보다도 행사를 제대로 치룰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충남기계공고 26회 친구들의 돈독한 우정을 믿었기에 감

히 행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충남기계공고 26회 동기들의 정이 얼마나 두터운가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각자 전국에서 흩어져 살아오랜 시간 연락이 되지 않던 친구들도 준비과정에서 연락이 되었을 때 모두 하나같이 지난 헤어져 지내던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서로 반가움의 정으로 가득하였고 또한 행사 준비에 기꺼이 참여하여 주었습니다.

이번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명의 동기들의 소재를 파악했고 또한 100여 명이 행사기금 모금에 참여하였거나 행사 당일 만남의 장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사회 어느 집단이 오랜 시간 흩어져 살다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충남기계공고 동문들이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강웅규 추진위원장이 졸업30주년기념행사에서 졸업기념기를 휘두르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두가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나름대로 작은 성과를 거두었으니 앞으로 더 많은 친구들이 하나 될 것이라는 기대로 아쉬움을 달래 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등 어수선한 가운데 모교 동문행사의 발전을 위해 이번 행사기금 모금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친구들 그리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행사에 참석하여 만남의 정을 함께하여 준 내빈과 선후배 동문 여러분과 친구들 정말 고맙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번 행사에 적극 참여해준 친구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만남의 정을 만끽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겠지만 우선 서면으로 먼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초석이 깔렸으니 앞으로 이번 행사보다도 더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더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 지리라 확신하면서 거듭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0주년 행사에 참석해주고 뒤에서 묵묵히 도와준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기에 그날 감동의 행사를 잘 치룬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의 삶에 충실하려 돌아가겠지만 이제는 지속적으로 더 자랑스런 충남기계공고의 동문으로 계속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26회동문회, 졸업30주년행사 후 총동문회에 1천만원 전달

강웅규 동문회장 등 동기들 뜻 모아 발전기금 5백만원, 장학금 5백만원

26회 동문들이 졸업30주년기념기를 들고 당당하게 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6회 동문들이 30년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담소를 나누고 있다.

26회 졸업30주년기념행사(추진위원장 강웅규)를 지난해 12월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 2층 라임홀에서 무사하게 치른 26회 동문들이 행사를 결산하고 총동문회 발전기금으로 500만원 보내온데 이어 총동문회 장학금으로 500만원을 보내와 선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강웅규 26회동문회장(계룡시의회 부의장)은 추진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고 난 후 임원 회의를 열고 26회 동문들의 뜻을 모아 장학금까지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강웅규 26회동문회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동기들과 동문 선후배님들의 후원으로 졸업 30주년기념행사를 무사히 마쳐 전통을 이을 수 있었다”며 “모교 졸업 30주년 행사를 통해 충기인으로서의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않고 뜨거운 열정으로 30년의 세월을 보냈던 지난 날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고 되새기며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26회 이하 후배들의 동문회는 결성이 안 된 회수가 많은데, 지난해 졸업30주년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탄생한 26회동문회 동문들도 강웅규 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친목을 도모하며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베리아 한파 뚫고 따뜻한 남쪽나라 안착”

고니가족의 평화

고니의 날개짓

고니의 힘찬 비상

고니 장거리 비행

거위가족의 행복

거위 가족 육지 소풍

거위 엄마의 날기 시범

거위의 짠한 사랑

“학생 본분에 최선 다하면 성공적인 기술인 될 수 있다”

기룡전기 매년 모교에 장학금 1천만원 전달, 7년째 모교 후배 사랑

기룡전기는 해마다 이중선(36회) 대표이사가 모교를 방문하여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룡전기는 올해도 1월 6일 모교를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이종업 교장에게 1천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기룡전기의 장학금 전달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다.

기룡전기는 전기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발전한 회사이다. 기룡전기에는 선후배동문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모교 3회 이우정 회장과 서한수 부회장을 비롯하여 2회 오상진(자동차과) 선배부터 13회 강현용(기계과), 신상우(기계과), 15회 이정원(전기과), 23회 이남희(전기과), 28회 변영환(기계과), 37회 유용주(기계과), 43회 전알렉산더(전자기계과), 51회 손홍구(산업설비과) 동문 등이 한마음으로 모교를 사랑하고 있다.

기룡전기 동문들은 모교 총동문체육대회를 비롯해 모교의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가 열리지 못해 총동문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발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해 총동문회에 보내온 바 있다.

이중선 대표는 “가정 형편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을 저버리면 안 된다.”라며 “후배들이 환경 때문에 미래를 비관하지 않고 현재 학생으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성공적인 기술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모교를 잊지 않고 해마다 힘든 환경에 처한 후배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 감사드리며, 본교 학생들이 선배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다가오는 미래를 용기와 패기로 당당하게 뚫고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학교는 앞으로도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교는 기룡전기 장학금 외에도 테크노충우회 장학금, 청암그룹 이언구(16회) 회장의 청암장학금, 총동문회 장학금 등을 기탁 받아 2022 학년도 성적 우수 신입생 40명에게 수여할 예정이다.

기룡전기 이우정 회장(중앙)과 이중선 대표가 이종업 교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예의 바탕으로 정직하게 살자” 좌우명

최철균 동문(19회) 서천경찰서장 발령

최철균 동문(19회.전기과)이 충남경찰청의 올해 1월 인사에서 서천경찰서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최철균 동문은 순경 공채 15회 출신(1989년 투신)으로 경위 시절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에서 종이에 묻은 지문을 식별하는 약품을 개발, 10억 원대의 국가 예산을 절감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경감으로 특진되기도 했다. 또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강력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는 등 형사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기대를 모았다.

최 동문은 순경에서 시작하여 총경에 오르기까지 충남청 과학수사계장, 서산서 수사과장, 천안동남서 형사과장, 충남청 경무계장과 감찰계장, 감사계장을 지냈다. 지난해 1월 경찰 투신 31년 만에 총경으로 승진한 바 있다.

최 철 균 서장

최철균 동문은 모교 후배들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며 “경찰에 꿈이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자문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철균 동문은 평소 ‘예의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살자’ 를 좌우명 삼아 성실하게 일과 사람을 대하고 있어 주위에서 훈남으로 평가받고 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기사를 제보해주세요”

각 회수나 단체동문회 소식과 개인동정을 알려주시면 정성껏 게재하겠습니다.

총동문회편집실 ☎(042)252-5656

동문 언론인들 새해 잇따라 승진 경사

송교웅 충청투데이 상무, 송창건 TJB대전방송 부장
박동일 YTN부장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 취임

송 교 웅 상무

송 창 건 부장

모교 동문 언론인들이 새해 들어 잇따라 승진하는 경사를 올리고 있다. 충기언론인회(회장 이우정)는 현재 10여 명의 언론인들이 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올해 1월 인사에서 충청투데이신문에 근무하고 있는 송교웅 동문(18회)이 문화사업본부장 겸 상무로 승진하는가 하면, 송창건 동문(22회)이 카메라부 부장으로 승진했다.

송교웅 동문은 1990년 대전매일신문(후에 충청투데이로 개명) 창간멤버로 입사하여 광고부장, 광고국장, 문화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회사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워 이번에 상무에 발탁됐다.

송창건 동문은 1995년에 카메라부 기자로 입사하여 2017년 차장에 이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다. 송 동문은 민영방송베스트리포트상, 우주강국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이달의 방송기자상, 목요언론인회 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송교웅 동문은 “여기까지 동문들의 도움이 많았다”며 “특히 이우정 회장님의 많은 배려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창건 동문(충기언론인회 총무)은 “모교 동문들은 사회생활에서 든든한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좋은 프로 제작으로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충기언론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동일 YTN부장은 45년 역사를 지닌 목요언론인클럽 사무총장으로 1월 12일 취임했다.

이우정 회장(총동문회 고문)은 “코로나사태로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우리 충기언론인회 동문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인정받은데 대해 축하한다”며 “향후에도 건강하게 일해 충기인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 신도성 편집위원 –

“코로나19로 57회 졸업식 비대면으로 조촐하게 열려”

모교 7개학과 288명 졸업, 졸업생 34,287명 집계

이종업 교장이 57회 졸업식에서 채응석 학생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고 있다.

졸업식은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학생 소수만 참석하여 나르샤실에서 열렸다.

내빈이 참석하지 않고 교장, 교감과 행정실장이 참석하여 졸업을 축하했다.

모교 57회 졸업식이 1월 7일 오전 10시 30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조촐하게 열렸다.

이날 대부분 졸업생들은 각 반 교실에서 담임선생님과 앉아 방송으로 진행되는 졸업식을 조용히 경청하며 졸업식을 가졌다. 2021년에 이종업 교장이 부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학교의 창조적 공간이며 휴게실인 나르샤실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개식사,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장 및 상장수여, 학교장 축사, 교가제창, 폐식사 순으로 학교장을 비롯 대표 학생 등 최소인원만 모여 방송으로 식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57회 졸업식은 외부인사, 총동문회장 및 임원, 운영위원, 학부모위원, 학부모님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방역수칙에 의거하여 진행됐다.

57회 졸업생은 CNC선반과 40명, CNC밀링과 40명, 산업설비과 42명, 금형과 41명, 기계설계과 41명, 전기과 40명, 전자기계과 41명 총 288명이다.

모교 후배들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 진로사항은 공무원과 공기업 등 13명, 부사관 6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99명의 취업이 확정되었다. 또한 한양대, 중앙대, 동국대, 충남대 등 4년제 대학 62명, 전문대학 53명이 진학하였다.

57회 졸업식의 영예의 교육감상은 금형과 채응석, 총동문회장상 전자기계과 조윤도, 대전광역시장상 전기과 장덕희, 학부모회장상 기계설계과 임성주군이 수상하는 등 많은 외부상과 교내상들이 차례대로 수여되었다. 졸업장은 전기과 이제민군이 288명을 대표하여 받았다.

이종업 모교 교장은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 삶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젊음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랑스러운 충기인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마쳤다.

2023년 58회 졸업식은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상으로 돌아와 성대하고 활기찬 졸업식을 기대하여 본다.

– 정찬목 편집위원(12회. 모교 교사) –

“공무원·공기업 인재 양성 요람 성장”

모교 후배 대전시청, 철도공사 등 13명 합격

모교가 공무원. 공기업 인재 양성 요람으로 성장하고 있다. 모교 후배들이 각종 공무원·공기업 임용시험에서 총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고무적이다. 1월 현재까지 대전시교육청에 1명, 대전시청 2명, 서울시설공단 3명, 한국철도공사 5명, 국가직 공무원에 2명 합격했다.

모교는 이종업 교장 취임 이래 대전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에 대비해 각 과별 공무원 및 공기업 반을 만들고 학과별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며 합격자 초청 특강, 면접 대비 특강, NCS 특강 등을 여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또 학교 공간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특성화고 최초로 AR 시뮬레이션 실습실 도입하는 등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대전시청에 임용된 전명성 학생은 “혼자 준비했다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고, 롤모델이 돼준 선배들이 있고 함께 준비한 친구들이 있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 충남기계공업고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종업 교장은 “역사와 전통을 첨단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추후 공기업 및 공무원 임용 역시 좋은 성과가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교 청렴자체시책평가 우수학교에 선정

대전시교육청 중학 3곳, 고교 2곳 등 포상

대전시교육청은 2021년 청렴자체시책평가에서 행정기관 2곳과 유치원 1곳,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교 2곳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모교는 도안고등하교와 함께 청렴도 제고에 현격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교육감 기관 표창과 유공자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수입 현황

기간 : 2021년 12월 21일 ~ 2022년 1월 18일까지
입금계좌번호 : (농협) 351-0214-2218-53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

연회비 및 발전기금

상	1	한정선	20,000	자	9	오경세	20,000	화	15	김학규	100,000	기	23	한병수	50,000
광	2	신황덕	20,000	자	9	유영선	100,000	기	15	박찬영	20,000	기	24	남광덕	100,000
상	2	윤우열	20,000	전	9	장광용	20,000	기	15	송신호	20,000	기	24	안영호	1,000,000
방	2	이동영	20,000	자	9	최재일	30,000	기	15	원상길	20,000	전	24	정진혁	20,000
전	3	김용호	20,000	광	10	이기성	50,000	기	16	강범석	20,000	전	27	김태완	30,000
광	3	서한수	320,000	전	10	최영관	20,000	기	16	김석래	20,000	전	29	김병설	50,000
전	3	송의석	1,000,000	기	10	최인묵	20,000	전	16	김희곤	20,000	배관	30	박효수	50,000
전	3	윤여숭	100,000	전	11	김현수	200,000	기	16	노승억	20,000	기	33	이재상	20,000
전	3	이봉원	50,000	전	11	남상천	20,000	전	16	성기일	20,000	단체			
전	3	이우정	20,000	전	11	황인호	20,000	기	16	연락바람	50,000	26회동문회			100,000
방	4	송석범	200,000	자	12	민병기	20,000	배관	16	오한선	20,000	26회동문회(30주년기념발전기금)			5,000,000
전	4	한봉석	20,000	화	12	윤권재	100,000	기	16	윤석길	20,000	공주동문회			500,000
방	5	박상기	50,000	기	12	정주용	100,000	기	16	이계천	20,000	14회후원회(18대회장취임기념품)			3,400,000
자	5	한상덕	50,000	기	12	정찬목	200,000	기	16	이재흥	20,000	14회후원회(고문및임원진상견례)			642,000
전	7	김영수	20,000	기	13	강현용	100,000	전	16	장보환	20,000				
광	8	김영준	20,000	기	13	박상영	50,000	기	18	신동현	20,000				
전	8	이재범	100,000	기	13	송치경	20,000	기	19	배영환	20,000				
전	8	한충석	20,000	기	13	신상우	20,000	기	19	신동진	20,000				
자	8	황병식	20,000	화	13	이상욱	100,000	기	20	김동로	50,000				
기	9	김범우	20,000	기	14	송수헌	100,000	기	20	김홍기	20,000				
전	9	박선정	200,000	기	14	이점규	20,000	기	21	문길수	20,000				
광	9	박성하	50,000	기	14	이황훈	50,000	기	23	고승미	50,000				
기	9	박종복	20,000	기	14	한경환	20,000	기	23	임병군	20,000				

전기과 7회 모임 연회비

전	7	김영금	20,000
전	7	김용달	20,000
전	7	문제대	20,000
전	7	송인범	20,000
전	7	우창석	20,000
전	7	유중조	20,000
전	7	윤석천	20,000
전	7	윤용길	20,000
전	7	이재원	20,000
전	7	이종욱	20,000
전	7	임경선	20,000
전	7	전호필	20,000
전	7	정하연	20,000
전	7	조정현	20,000
전	7	차연수	20,000
전	7	천강춘	20,000
전	7	한인수	20,000
전	7	황규학	20,000

회보광고비

기	18	박종용	50,000
기	18	장영우	100,000

특별회계장학금

단체 26회 동문회 5,000,000

새해 현충원 참배, 호국영령 기려

총동문회 임원과 14회 동문들 영하 날씨 속

총동문회 강신열 총동문회장과 민경식 자문위원, 이원승 고문, 이재범 감사, 백채준 선임부회장, 한흥교 사무총장, 이진혁 총무국장 등 임원과 14회 동문회 남상복, 박광수, 박병용, 박찬호, 엄필환, 정천필, 차영대, 김영훈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1월 12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호국 영령에 넋을 기리고 동문인 임재엽상사 추모를 위한 대전 현충원 참배가 있었다.

강신열 총동문회장은 "14회동문회에서 10여 년 전 부터 해왔던 현충원 참배 및 봉사 활동을 더 많은 동문들이 여러 방면으로 참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이원승 고문은 "그간 14회 동문들의 현충원 참배 및 봉사활동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 이진혁 총무국장–

모교 학생문화체육공간 예산 확정

내부 인테리어공사 동문 기증 구상

모교 정문 바로 안쪽 실습동 대수선 공사가 교육청 예산이 확정되어 올해 공사가 이루어진다. 모교 측은 이 곳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동문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

모교 학생문화체육공간의 외부 및 내부 기본 공사는 교육청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동문 기증을 받아 주진할 계획이다. 동문 중에서 기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학교의 사례처럼 동문의 이름을 따 OOO관으로 동명칭을 정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동문은 모교 행정실(전화 042-580-2120)로 연락을 주면 된다.

KIA 남대전 기아 서비스
자동차 검사 . 보험 수리
대표 장 영 우 (18회) 010-2304-1500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276-14번지 (면허시험장)
TEL : (042) 282 - 1500 / FAX : (042) 282 - 1501
E-mail : jyu9839@hanmail.net

이름 조가네 갑 하는 오징어

충청지역 동문님들을 체인점 가족으로 모십니다. 기계과(15회) 조현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갑오징어 전문 음식점 | 합리적인 가격! 환상적인 맛!
조가네 갑오징어만의 경쟁력
1 본사 OEM 소스 공장에서 직접만든 소스 공급
2 전문적인 주방 기술이 필요없는 시스템
3 유행을 타지않는 독창적인 아이템
4 본사의 가맹사업팀 전문가들의 도움
가맹문의 1800-6084 www.jonlee.co.kr
조가네 갑오징어 대전관평점 ☎042-931-1375

emp (주)이엠피서비스 www.empservice.co.kr
대표 정 구 창 (10회)
H.P 010-5403-8902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13길 25, 에이스하이테크 2차 809호
TEL : 1644-2660, FAX : 02-701-7298
▣공동주택/건물종합관리
▣경비/청소, 정보통신공사
▣면세물류/ 근로자파견

필 엔 텍
FIL & TECH
대 표 진 춘 식 (21회)
010-8823-8548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39번길 36
TEL. (042)626-8548 팩스. 626-8549
홈페이지 : www.filntech.com
CLEAN 장비, 공조용 FILTER 및 각종 산업용 FILTER

박 종 용 세무회계사무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1308번지
하이베라스빌딩 3층
(우)302-830
서대전세무서 앞, 제일은행 옆
세무사 박 종 용 (18회)
TEL : 042-471-6400, 6442
FAX : 042-471-6443
핸드폰 : 010-7680-3377
E-mail : pjy4716400@hanmail.net

페인트도소매 조색시스템 (3분조색 OK) 도 장 공 사
분체, 액체 열처리도장
제비표페인트 대연상사
제 일 테 크
유 병 각 (18회)
010-6424-723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89-1
산업용재유통단지18동 135,136호
TEL:(042) 670-7877, 7233
FAX:(042) 670-7876

(주)코핸즈 대리점
(주)지에스에이 대리점
(주)에어스타 대리점
콤프레사 주문제작 및 수리 에어 주변기기 일체
한 국 기 계
대표 장영옥(옥빈.玉賓) 18회
cell : 010-5455-8786
콤프레사전문 콤프나라 www.compnara.com / www.hkmcomp.com
매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38호 / 우. 306-754
Tel. 042 · 670 · 8962, 042 · 623 · 8962 / Fax. 042 · 670 · 8963
E-mail : hkmcomp@hanmail.net
공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160 산업용재유통단지 18동 153호, 154호

누리상조
★ 매월 납입금 없는 후불방식 입니다.
◈기존 상조회사보다 저렴합니다.
대표: 나 익 성 (기 13회)
010-4433-0444

탐라돌구이
윤 여 갑 (10회)

H.P : 010-5454-1262
TEL : 042-823-8888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 607-4
♣대형 주차장 완비♣

미르마르커피
대표 조 성 민 (16회)
Hp 010.5402.3132
강릉 안목커피거리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2
Tel : 033-653-3130
FAX : 033-653-3132
E-mail : mirmarcoffee@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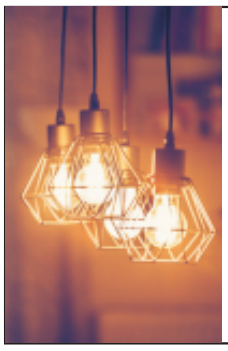
※네이버에 한방몰을 검색해보세요.
세계인의 슈퍼푸드 미국판매1위
건강선물! 노니원액
대표 박봉구(23회) HP 010.2415.4477 TEL 1566-7516
물류센터 |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41-10 공장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봉황로 186
한솔바이오한방(주) 한방몰 www.hanbang-mall.co.kr under4477@hanmail.net

KIA Movement that inspires
(16회)
김 희 곤(男祈) 한밭대리점/카마스터
340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446번길 10 (문지동)
Tel : 042-863-5454 Fax : 0504-466-5838
Mobile : 010-3300-5838
E-mail : kng7587@hanmail.net
A/S센터 : 080-200-2000

금산 왕대양꼬치 GEUMSAN WANG DAE LAMB

대표 권 경 중 (26회)
[32736]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로 16
Mobile : 010-3588-4135
예약문의 : 041) 751-2299

세무법인 YEE JEONG 이정
稅務法人 以 楨 유성지점
대표세무사
마 수 용 (18회) 010-4506-5089
[국세청 서기관, 북대전, 대전세무서 등 28년 근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875 비에스타워 506호 (충남대 서문앞)
Tel 042-719-8898 Fax 042-719-8810
신고대리 기장대리 불복청구 세무조사 양도 상속 증여



Asung (주)아성전기조명상사
대 표 표 광 열 (11회)
010-9252-1685
◆LED조명기구, 전선류
◆나노 배선기구
◆위너스 배선기구
◆번개표 조명
◆각종 전기용품도소매 총판
대전광역시 중구 인창로 4(대흥동)
TEL : (042) 253-1625 / 226-1625
FAX : (042) 222-1625
E-mail : asung430@naver.com

kt biz 공식파트너
HTM NET & COMMUNICATION (주)에이치티엠
정기채(기22회) 010-3411-7788
· 기업용 인터넷 기가오피스, 오피스IP, 네트워크보안
· 기업용 전화 인터넷전화, 일반전화, 전국대표번호
· 지능형 CCTV 영상, 보안 장비
· 네트워크공사 신규사무실, 사무실이전 네트워크 공사
가입센터 1522-2536
www.happyinternet.kr

포항 동문회 선배님, 후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항 동문회 선배님, 후배님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회 정밀기계과 김동로 010-2526-8033

NH NongHyup 농협홍삼
차장 김 병 설 (전. 29회)
010-5456-3966
면역력 향상으로 건강 증진!
한삼인 농협홍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88
TEL : 043-835-8585
FAX : 043-835-8536
E-mail : kbs-75@hanmail.net